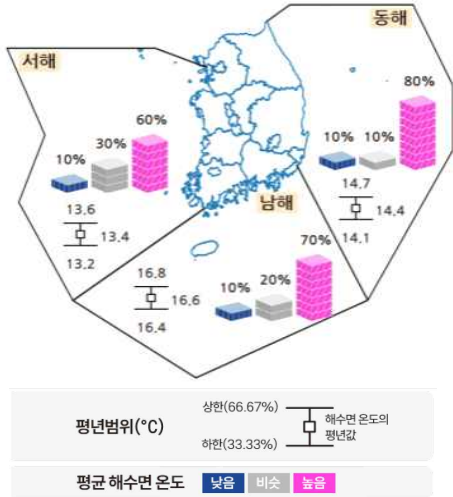


# 2026년 5월 해양기상기후정보

2026. 5. 4.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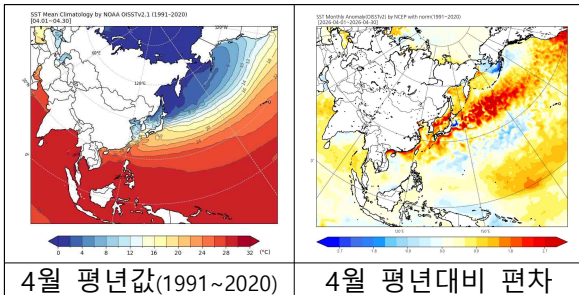
## ● 2026년 5월 해수면 온도 전망(4.23.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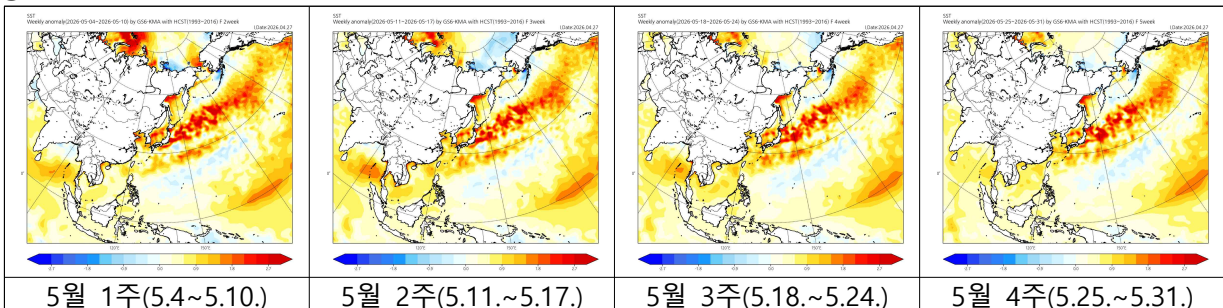
※ 평년범위는 과거 30년(1991-2020년)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확률별 해석>

확률 (낮음: 비슷: 높음)	해설
높음 확률이 50% 이상 (낮음(20):비슷(40):높음(40))	평년보다 높겠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또는 (낮음(30):비슷(40):높음(30))	평년과 비슷하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낮음(40):비슷(40):높음(20))	평년보다 낮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평년보다 낮겠음

## ● 해수면 온도 현황 및 예측자료 ① 2026년 4월 해수면 온도 현황(NOAA OISSTv2<sup>1)</sup>)



## ② 2026년 5월 기후예측시스템(GloSea6) 해수면 온도 편차<sup>2)</sup>



## 최고 조위

지점	일자	조위값
인천	5월 18일	926m
완도	5월 17일	408cm
포항	5월 20일	46cm

## 안전

### 해양조난사고 현황

- 5월 해양 사고는 1,661척(8%), 14명(3.9%) 발생(최근 5년간, '21년~'25년).
- 사고유형은 충돌 7.5%(125척), 침수 6%(100척), 좌초 4.2%(70척), 화재 3.8%(64척) 순으로 많음
- 사고원인은 운항·안전부주의 39.1%(650척), 정비불량 38.3%(637척) 이 가장 많음

### 해양사고 예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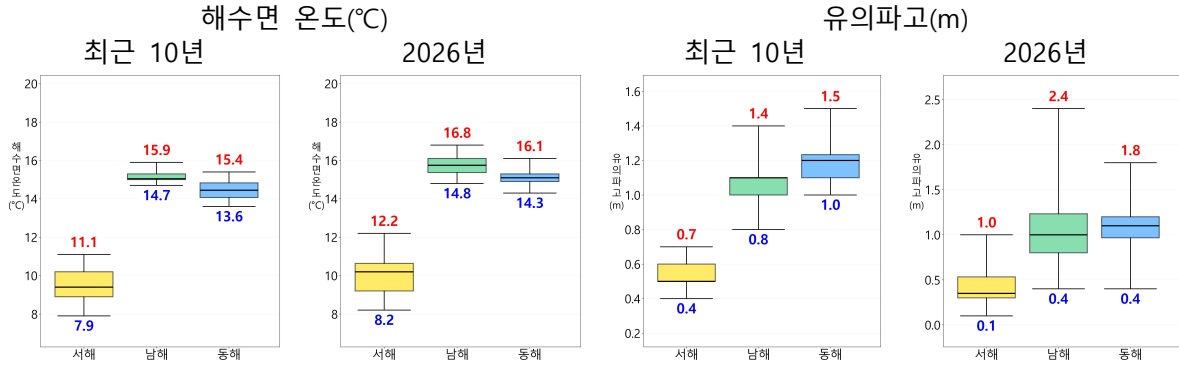
- 작업중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 착용, 양망기 등 어로설비 이용시 안전거리 유지, 무리한 조업 자제 및 기상정보 주의

## 어황

- 전갱이, 살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멸치는 전·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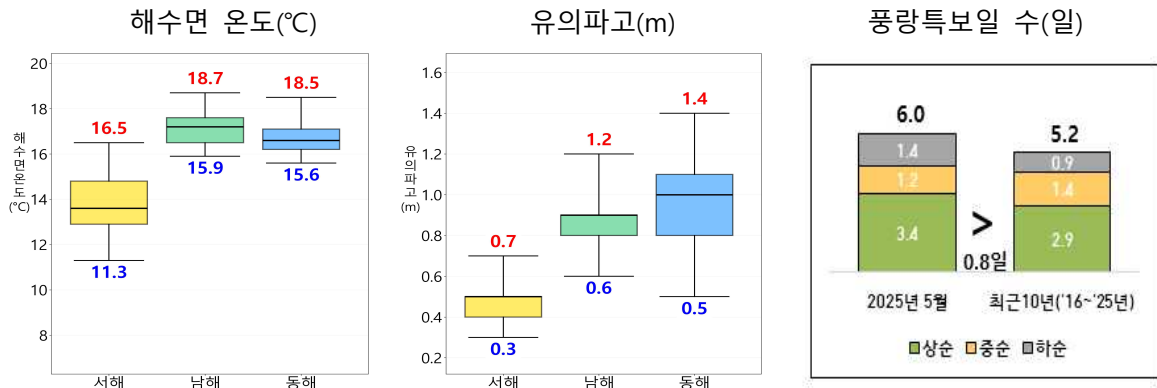
1)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2) 편차: 예측값에서 기후예측모델의 과거 적분기간(1993-2016년)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 4월 분석(최근 10년('16~'25년) 및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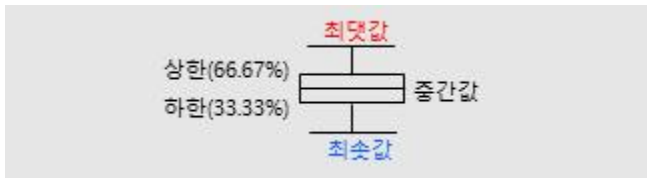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최근 10년			2026년 4월			최근 10년			2026년 4월		
해역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9.5	15.2	14.5	10.0	15.7	15.1	0.5	1.1	1.2	0.5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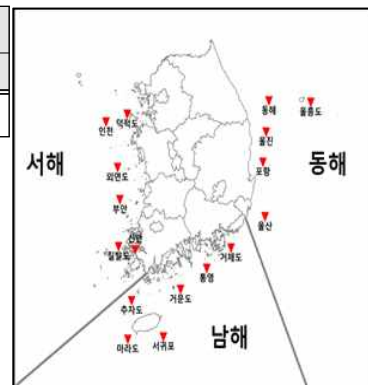
● 5월 해양기후 특성(최근 10년('16~'25년))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13.8	17.2	16.7	0.5	0.9	1.0



\* 박스범위는 33.33%~66.67%에 해당하는 값으로, 국가승인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17개소를 활용함



[해양기상부이 지점 위치]

자료 협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기상기후정보

##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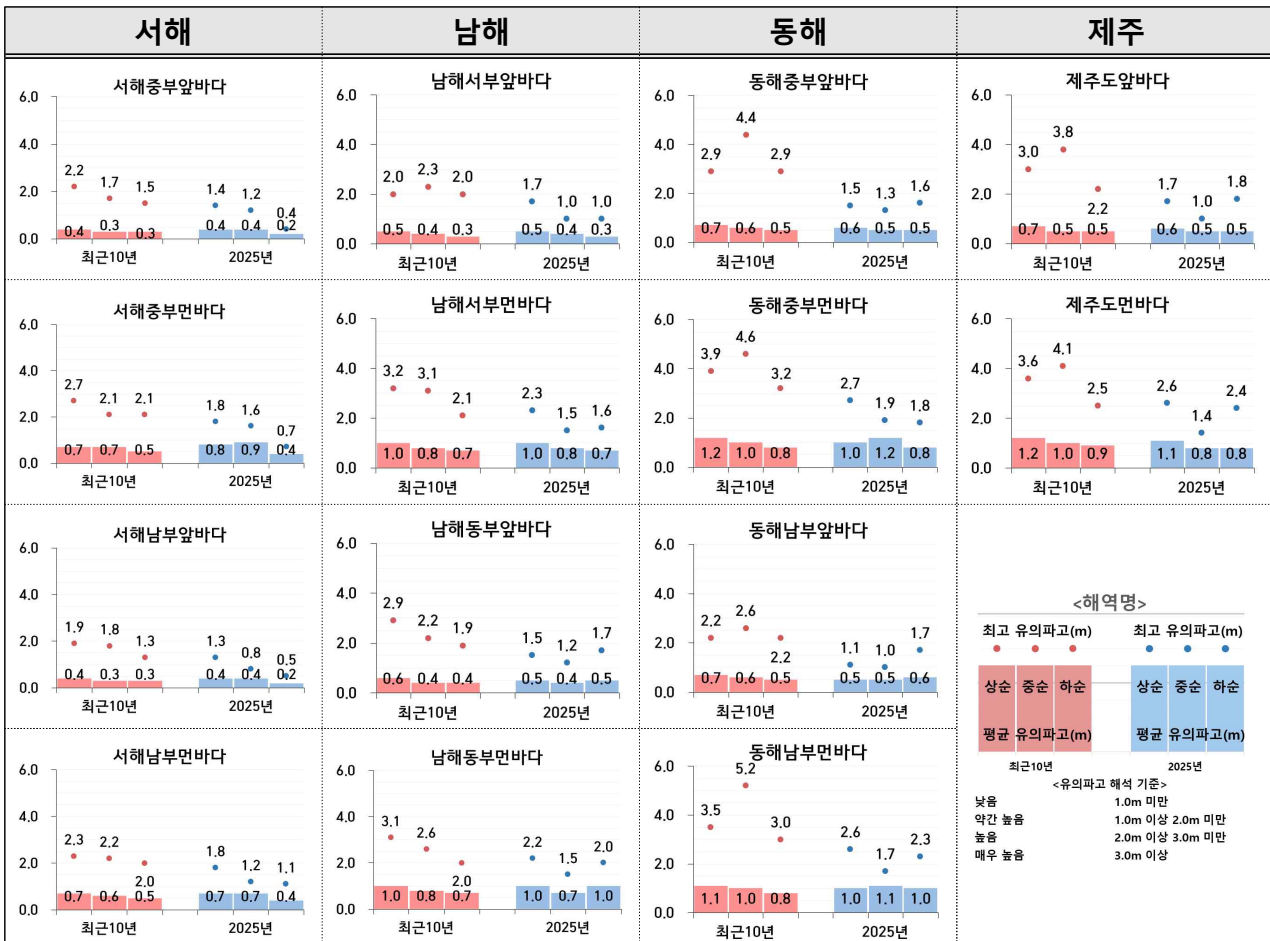
### 5월 해역별 및 순별 평균 유의파고(최근 10년('16~'25년))

해역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서해	0.4m (■ 0.0m)	0.6m (▼ 0.1m)	
남해	0.5m (■ 0.0m)	0.8m (▼ 0.2m)	
동해	0.6m (▼ 0.2m)	1.0m (▼ 0.2m)	
제주도	0.5m (▼ 0.2m)	1.0m (▼ 0.2m)	

▲ 전월대비 높음, ▼ 전월대비 낮음, ■ 전월과 비슷

해역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해	0.4	0.3	0.3	0.7	0.7	0.5	
남해	0.6	0.4	0.4	1.0	0.8	0.7	
동해	0.7	0.6	0.5	1.2	1.0	0.8	
제주도	0.7	0.5	0.5	1.2	1.0	0.9	

### 5월 평균 및 최고 유의파고(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 관측 이래 5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해	인천	'16.5.3.	2.7 (4.6)	칠발도	'15.5.13.	2.7 (3.2)	외연도	'16.5.3.	2.5 (3.6)
남해	거문도	'16.5.3.	3.2 (4.3)	통영	'16.5.3.	3.1 (5.1)	추자도	'18.5.20.	3.1 (3.6)
동해	울진	'24.5.16.	5.2 (7.0)	동해	'24.5.16.	4.6 (6.6)	포항	'24.5.16.	4.6 (6.0)
제주도	서귀포	'18.5.20.	4.1 (4.9)	우도	'18.5.20.	3.8 (4.4)	서귀포	'23.5.7.	3.6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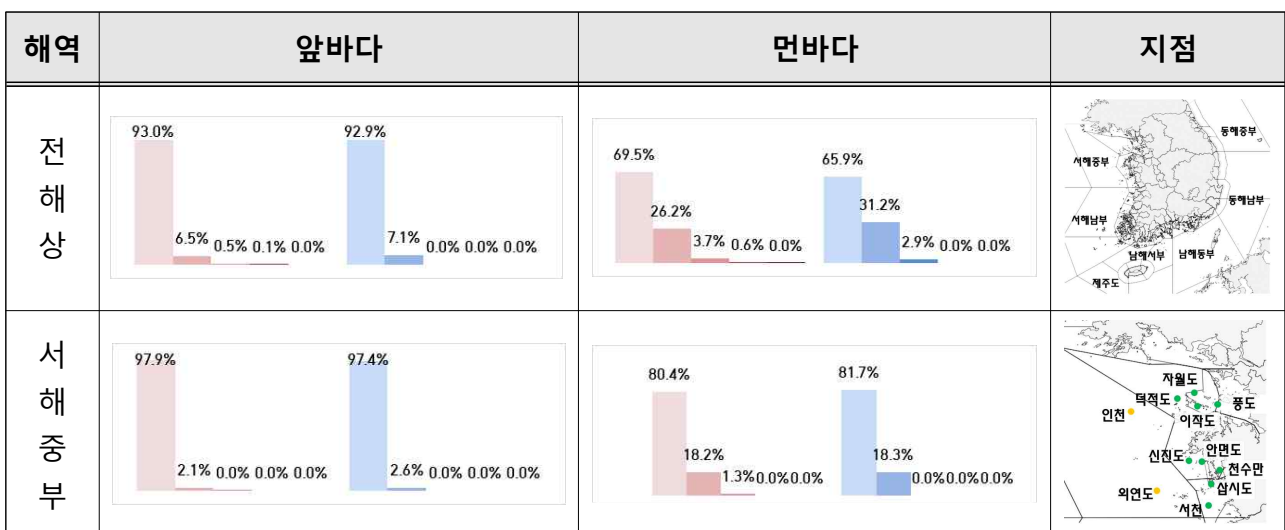
■ 5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분포(최근 10년('16~'25년))

- 최근 10년간 앞바다에서 1m 미만이 93.0%, 2m 이상이 0.5%로 나타났고, 먼바다에서 1m 미만이 69.5%, 2m 이상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앞바다에서 1m 미만이 92.9%, 2m 이상이 0.0%로 나타났고, 먼바다에서는 1m 미만이 65.9%, 2m 이상이 2.9%로 나타났습니다.
- 2m 이상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은 최근 10년간의 경우 제주도 먼바다(7.0%)였고,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4.9%)였습니다.

해역	앞바다		먼바다	
	1m 미만	2m 이상	1m 미만	2m 이상
서해	97.7%	0.0%	84.4%	1.0%
남해	93.6%	0.4%	71.6%	4.0%
동해	87.1%	1.3%	60.7%	6.3%
제주도	88.9%	1.0%	55.8%	7.0%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5월 평균 유의파고 분포(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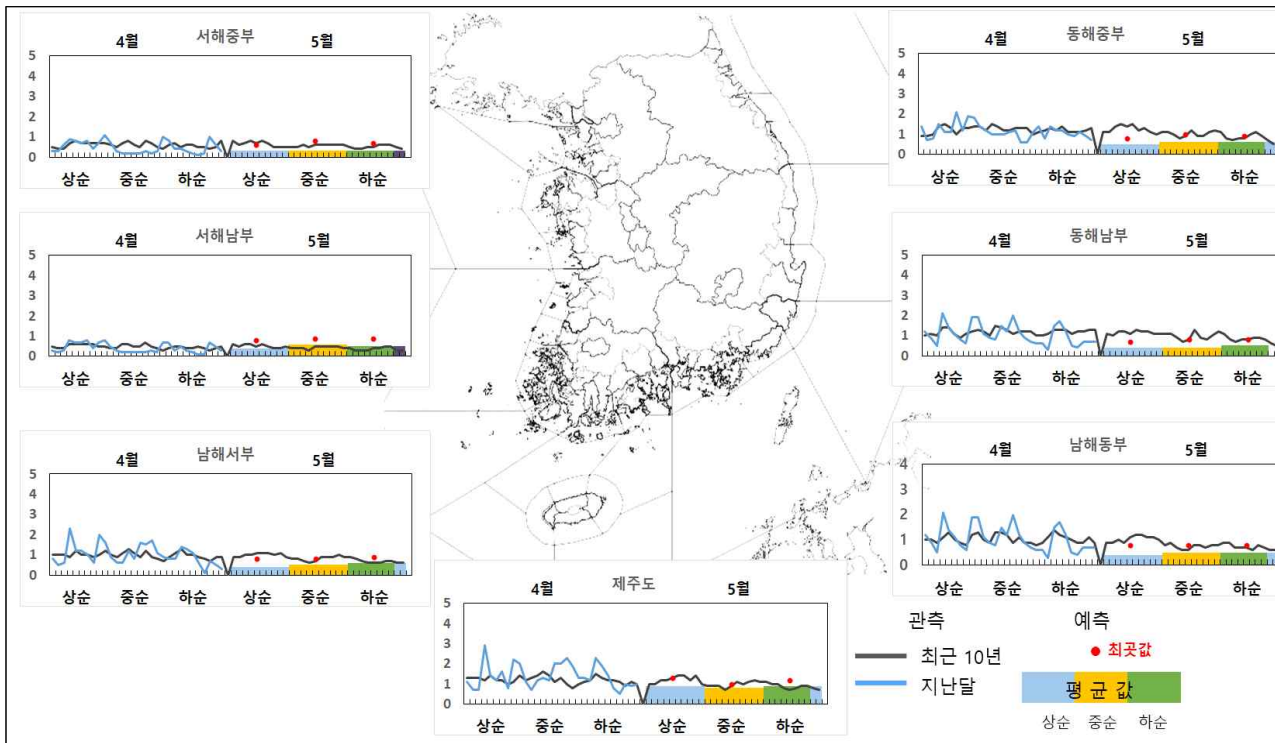


해역	앞바다	먼바다	지점
서해남부	<p>최근 10년간: &lt;1.0m (97.4%), 1.0~1.9m (2.6%), 2.0~2.9m (0.0%), 3.0~4.9m (0.0%), 5.0m≧ (0.0%)  2025년: &lt;1.0m (97.1%), 1.0~1.9m (2.9%), 2.0~2.9m (0.0%),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87.0%), 1.0~1.9m (12.2%), 2.0~2.9m (0.8%), 3.0~4.9m (0.0%), 5.0m≧ (0.0%)  2025년: &lt;1.0m (86.8%), 1.0~1.9m (13.2%), 2.0~2.9m (0.0%), 3.0~4.9m (0.0%), 5.0m≧ (0.0%)</p>	
남해서부	<p>최근 10년간: &lt;1.0m (95.2%), 1.0~1.9m (4.6%), 2.0~2.9m (0.2%), 3.0~4.9m (0.0%), 5.0m≧ (0.0%)  2025년: &lt;1.0m (94.2%), 1.0~1.9m (5.8%), 2.0~2.9m (0.0%),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72.1%), 1.0~1.9m (24.5%), 2.0~2.9m (2.9%), 3.0~4.9m (0.5%), 5.0m≧ (0.0%)  2025년: &lt;1.0m (71.0%), 1.0~1.9m (25.8%), 2.0~2.9m (3.2%), 3.0~4.9m (0.0%), 5.0m≧ (0.0%)</p>	
남해동부	<p>최근 10년간: &lt;1.0m (92.6%), 1.0~1.9m (6.9%), 2.0~2.9m (0.5%), 3.0~4.9m (0.0%), 5.0m≧ (0.0%)  2025년: &lt;1.0m (90.3%), 1.0~1.9m (9.7%), 2.0~2.9m (0.0%),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71.1%), 1.0~1.9m (24.4%), 2.0~2.9m (4.2%), 3.0~4.9m (0.3%), 5.0m≧ (0.0%)  2025년: &lt;1.0m (67.2%), 1.0~1.9m (27.9%), 2.0~2.9m (4.9%), 3.0~4.9m (0.0%), 5.0m≧ (0.0%)</p>	
동해남부	<p>최근 10년간: &lt;1.0m (88.3%), 1.0~1.9m (10.7%), 2.0~2.9m (1.0%), 3.0~4.9m (0.0%), 5.0m≧ (0.0%)  2025년: &lt;1.0m (89.2%), 1.0~1.9m (10.8%), 2.0~2.9m (0.0%),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61.6%), 1.0~1.9m (31.9%), 2.0~2.9m (5.6%), 3.0~4.9m (0.9%), 5.0m≧ (0.1%)  2025년: &lt;1.0m (51.6%), 1.0~1.9m (44.1%), 2.0~2.9m (4.3%), 3.0~4.9m (0.0%), 5.0m≧ (0.0%)</p>	
동해중부	<p>최근 10년간: &lt;1.0m (86.5%), 1.0~1.9m (12.0%), 2.0~2.9m (1.2%), 3.0~4.9m (0.3%), 5.0m≧ (0.0%)  2025년: &lt;1.0m (88.4%), 1.0~1.9m (11.6%), 2.0~2.9m (0.0%),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59.7%), 1.0~1.9m (34.2%), 2.0~2.9m (4.8%), 3.0~4.9m (1.2%), 5.0m≧ (0.0%)  2025년: &lt;1.0m (47.6%), 1.0~1.9m (48.8%), 2.0~2.9m (3.7%), 3.0~4.9m (0.0%), 5.0m≧ (0.0%)</p>	
제주도	<p>최근 10년간: &lt;1.0m (88.9%), 1.0~1.9m (10.1%), 2.0~2.9m (0.9%), 3.0~4.9m (0.2%), 5.0m≧ (0.0%)  2025년: &lt;1.0m (91.4%), 1.0~1.9m (8.6%), 2.0~2.9m (0.0%),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55.8%), 1.0~1.9m (37.2%), 2.0~2.9m (6.0%), 3.0~4.9m (1.0%), 5.0m≧ (0.0%)  2025년: &lt;1.0m (59.0%), 1.0~1.9m (36.1%), 2.0~2.9m (4.9%), 3.0~4.9m (0.0%), 5.0m≧ (0.0%)</p>	
	<p>최근 10년간    &lt;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p> <p>2025년        &lt;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p>	<p>● 앞바다 ● 먼바다</p>	

해역	앞바다	먼바다
서해중부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천수만, 안면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대치마도, 비안도	칠발도, 맹골수도, 부안
남해서부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대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 독도, 울릉도
동해남부	후포, 간절곶, 월포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마라도, 서귀포

[참고] 유의파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 및 파고부이 지점

## ■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유의파고 최근 10년('16~'25년) 및 '26년 4월 관측과 5월 예측 >

- ✓ 유의파고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6년 4월(1일~30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을 사용함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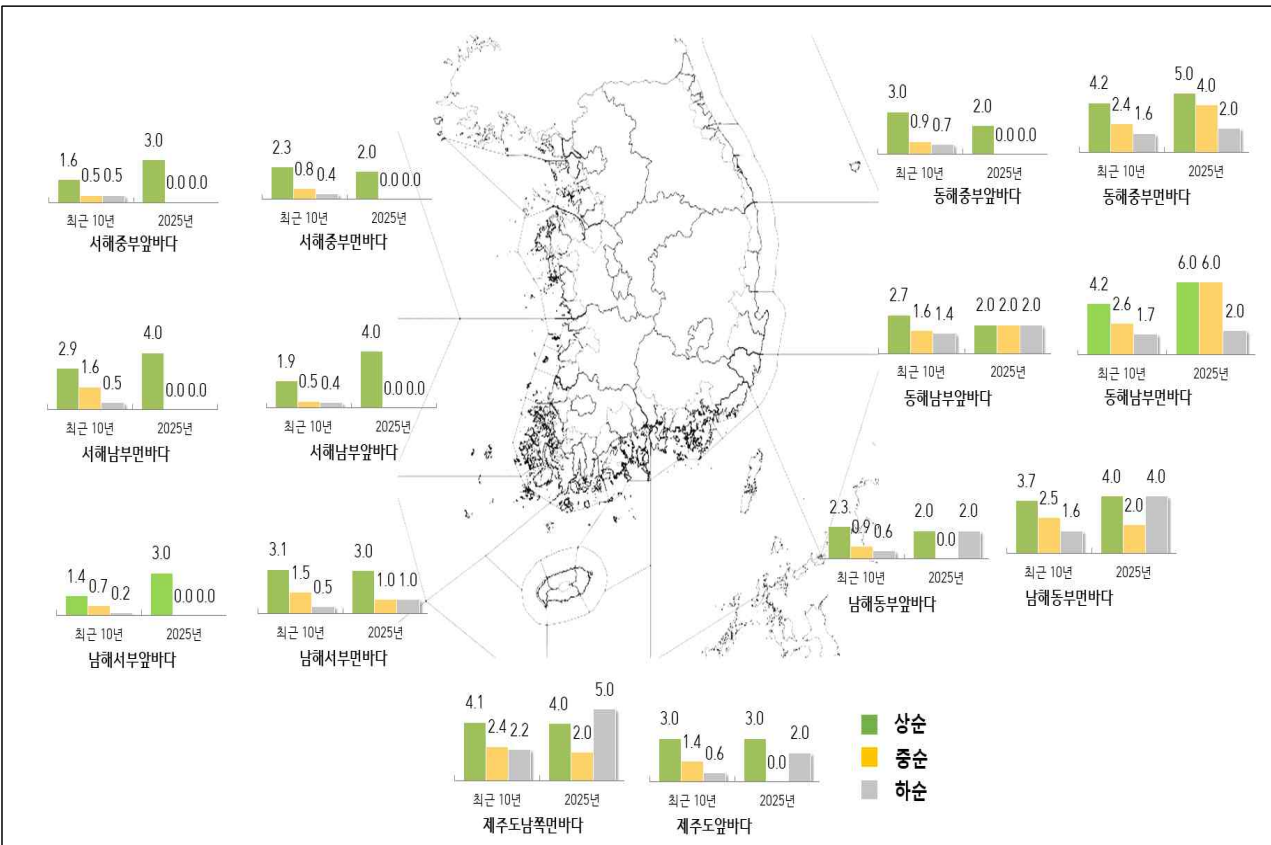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지점

## 풍랑특보일 수

### 5월 풍랑특보일 수(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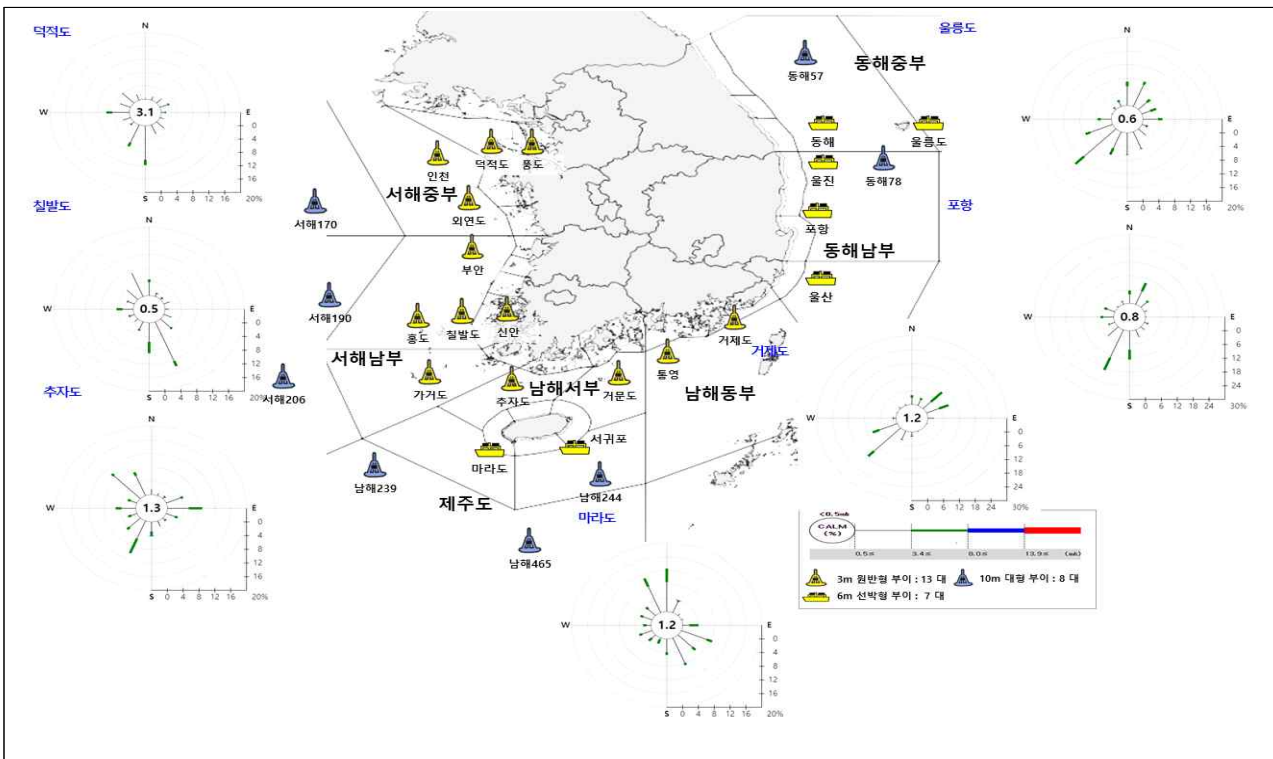
- 5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최근 10년간 5월 평균 5.2일로 전월 대비 2.5일 적었고, 지난해에는 6.0일로 전월 대비 0.5일 적었습니다.
- 5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최근 10년간 (상순) 2.9일, (중순) 1.4일, (하순) 0.9일 지난해에는 (상순) 3.4일, (중순) 1.2일, (하순) 1.4일로 나타났습니다.
- 5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최근 10년) 제주도남쪽면바다가 8.7일로 가장 많았고, 남해서부앞바다가 2.3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 난 해) 동해남부면바다가 14.0일로 가장 많았고, 서해중부면바다가 2.0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 해상풍

##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지난해('25년))

- 서해상은 남풍 계열, 남해서부해상은 서풍계열, 남해동부와 동해상은 남서풍 계열, 제주도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습니다.
- 전 해상 풍속은 3.4m/s 미만이 32.3%, 3.4~7.9m/s가 51.1%, 8.0m/s 이상이 16.6%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 풍속분포 최다 해역
  - (3.4m/s 미만) 서해중부가 57.5%로 가장 많았습니다.
  - (8.0m/s 이상) 동해남부가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 지난해('25년) 5월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S	2.1	55.3	37.3	5.2	0.0
서해남부	S	1.3	34.6	50.4	13.5	0.2
남해서부	W	1.0	33.0	49.1	16.9	0.1
남해동부	SW	1.1	33.9	46.3	18.7	0.1
동해중부	SSW	0.6	21.9	63.6	14.0	0.0
동해남부	SSW	0.5	15.6	57.1	26.0	0.8
제주도	N	1.3	24.2	53.8	19.9	0.8
전 해상		1.1	31.2	51.1	16.3	0.3

☞ 지난해('25년) 5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 해수면 온도

### 5월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최근 10년('16~'25년))

해역	해수면 온도(°C)
서해중부	12.7 (▲4.4)
서해남부	14.7 (▲4.1)
동해중부	16.1 (▲2.7)
동해남부	17.1 (▲2.0)
남해서부	16.1 (▲2.1)
남해동부	16.7 (▲2.0)
제주도	18.5 (▲1.6)

▲ 전월(최근 10년)대비 높음, ▼ 전월(최근 10년) 대비 낮음, ■ 전월(최근 10년)과 비슷

### 순별 평균 해수면 온도(지난달 ('2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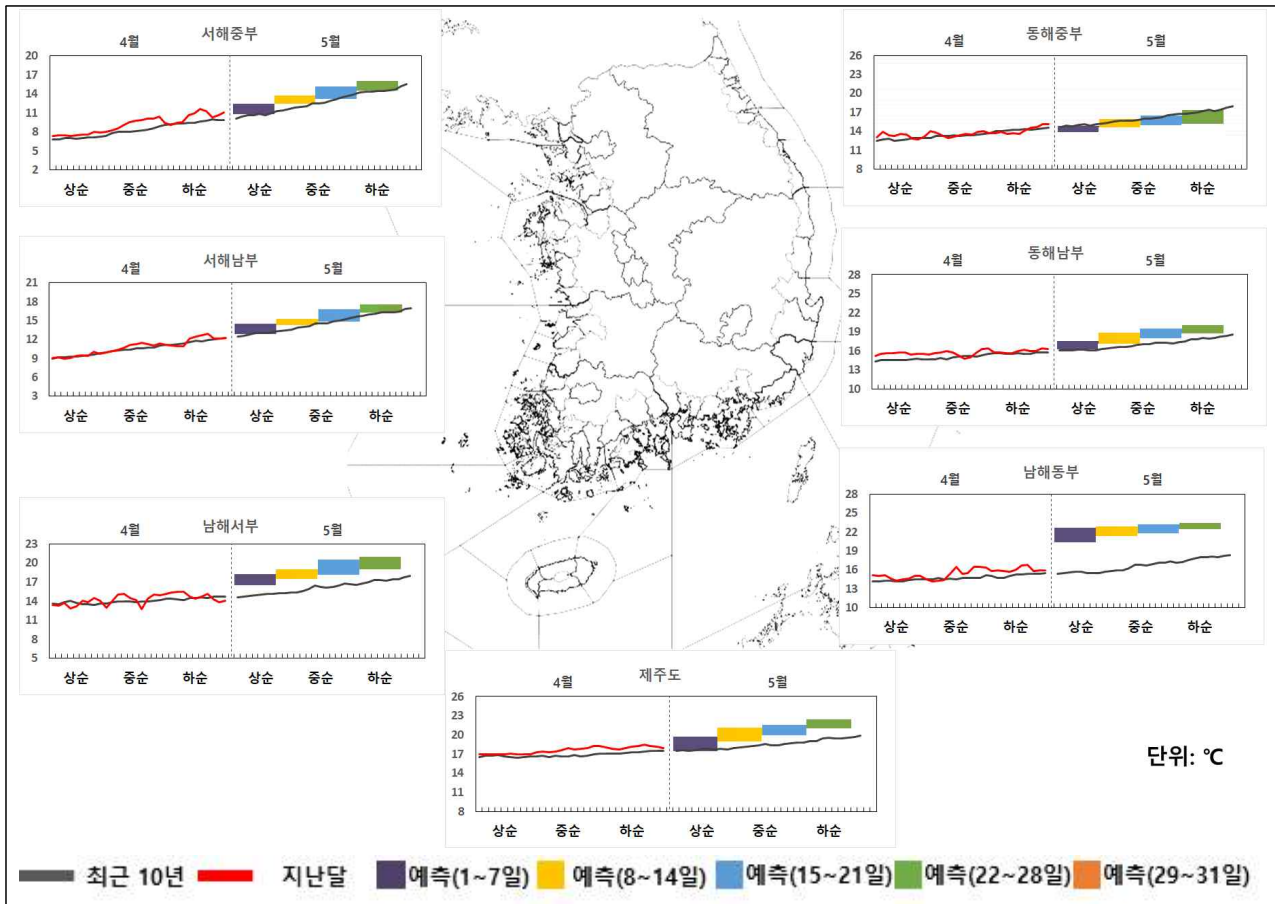
해역	4월 해수면 온도(°C)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7.6 (▲0.6)	9.5 (▲1.2)	10.5 (▲0.9)
서해남부	9.4 (■0.0)	11.0 (▲0.4)	11.9 (▲0.2)
동해중부	13.3 (▲0.6)	13.5 (▲0.2)	14.2 (■0.0)
동해남부	15.5 (▲0.9)	15.7 (▲0.6)	16.0 (▲0.4)
남해서부	13.6 (■0.0)	14.5 (▲0.5)	14.7 (▲0.2)
남해동부	14.8 (▲0.5)	15.5 (▲0.8)	16.0 (▲0.9)
제주도	17.0 (▲0.4)	17.8 (▲1.0)	18.1 (▲0.8)

▲ 최근 10년 대비 높음, ▼ 최근 10년 대비 낮음, ■ 최근 10년과 비슷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해수면 온도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지점

## ■ 해수면 온도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16~'25년) 및 '26년 4월 관측과 5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에서 관측한 정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최근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6년 4월(1일~30일)의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해수면 온도 예측은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지점

#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 5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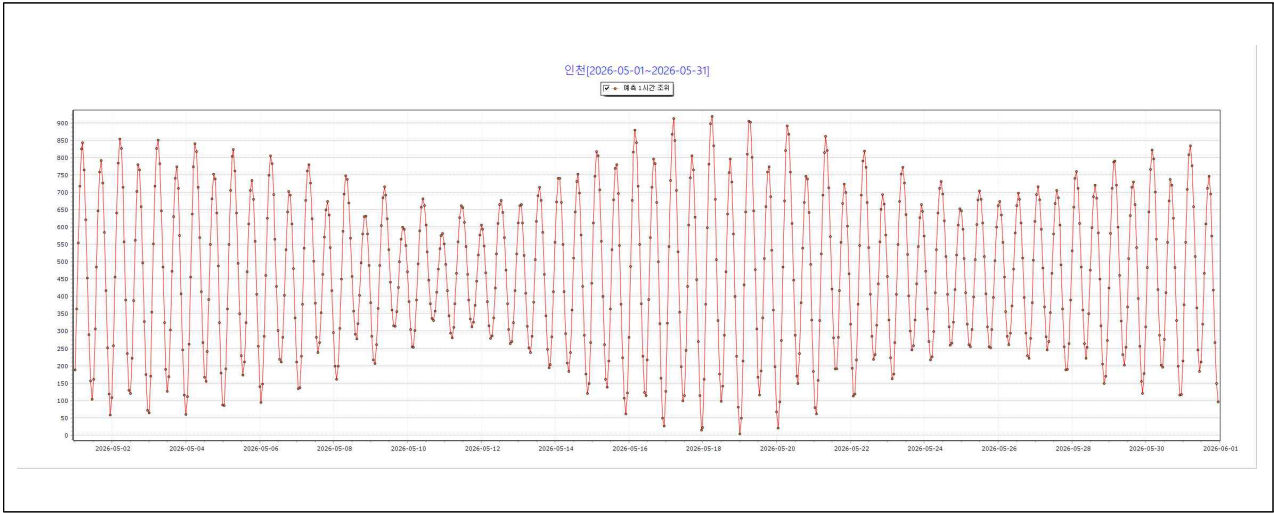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5월 18일에 92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5월 17일에 408cm, 동해안의 포항은 5월 20일에 4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 5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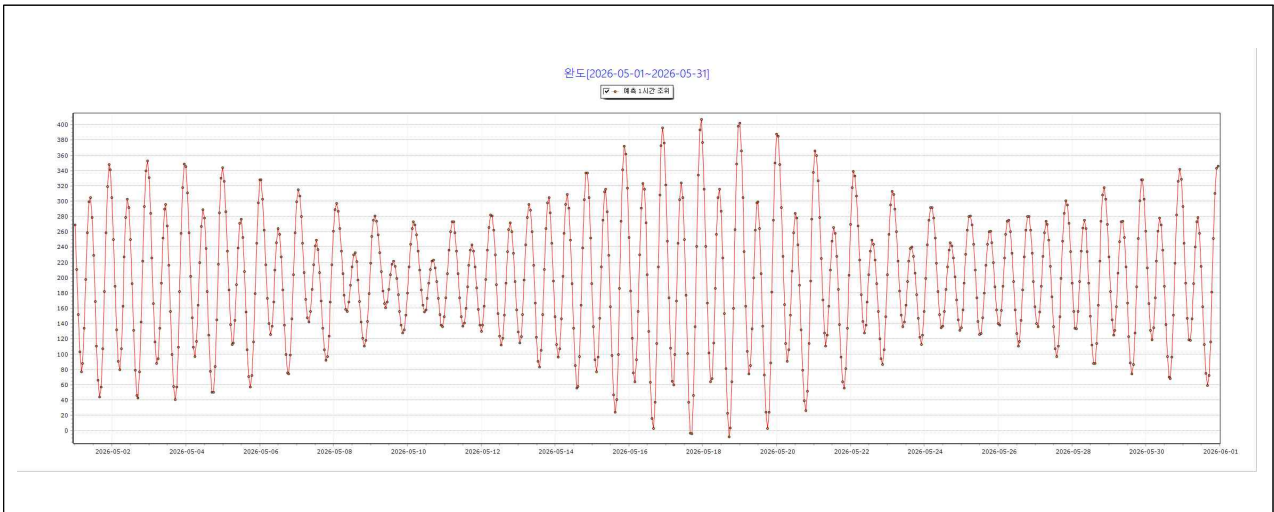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5.2.~5.)		대조기(삭, 5.17.~20.)		대조기(망, 5.31.)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5.2 05:14	858	5.18 05:41	926	5.31 04:48	837
	안흥	5.3 04:47	644	5.18 04:37	712	5.31 03:56	631
	군산	5.3 04:07	665	5.18 03:56	731	5.31 03:13	651
	목포	5.2 02:38 5.3 03:13	446	5.19 03:59	505	5.31 02:17	442
남해안	제주	5.2 23:31 5.4 00:03	256	5.17 23:26	301	5.31 23:18	259
	완도	5.2 22:50	353	5.17 22:47	408	5.31 22:34	349
	마산	5.2 21:36	182	5.17 21:38	209	5.31 21:16	181
	부산	5.2 20:59 5.3 21:26	112	5.17 21:00	131	5.31 20:37	114
동해안	포항	5.5 16:25	34	5.20 16:46	46	5.31 14:28	42
	속초	5.4 15:52 5.5 16:22	30	5.18 15:10 5.19 15:56 5.20 16:47	37	5.31 14:22	36
	울릉도	5.4 15:04 5.5 15:29	30	5.19 15:12 5.20 16:03	39	5.31 13:24	39

☞ 202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http://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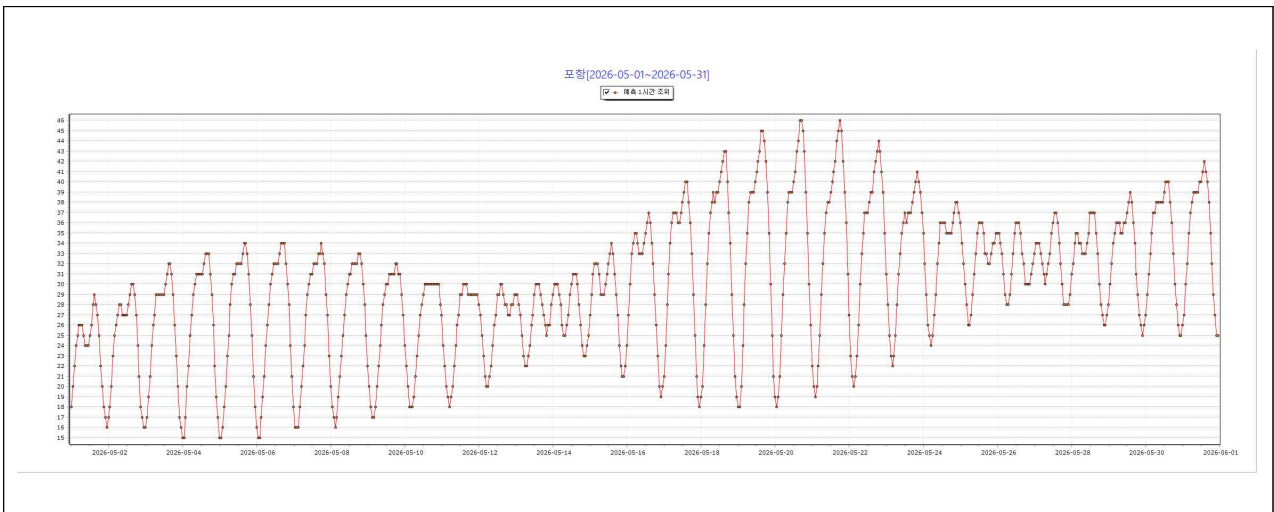
# ○ 5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026년 5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26년 5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26년 5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 해양안전정보

## 해상조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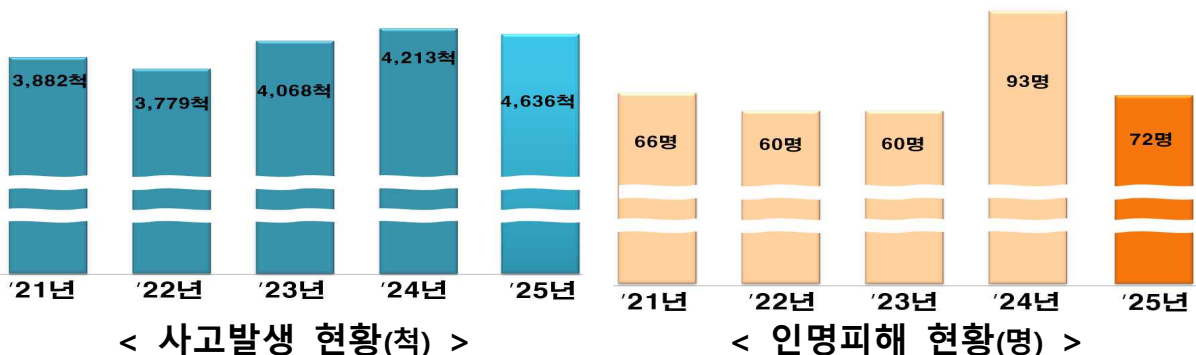
### ○ 해상조난사고 현황(5월)

- **(총괄)** 최근 5년간 20,578척의 선박사고와 3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5월에는 1,661척(8%), 14명(3.9%)이 발생하였음
- **(선종별)** 어선(낚시) 55.5%(어선 809척낚시 113척) > 레저선박 24.5%(407척) > 화물선(유조선 포함) 6.9%(115척) > 예부선 6.8%(113척) 등 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 78.3%(1,302척)\*를 제외, 6대사고 중 충돌 7.5%(125척) > 침수 6%(100척) > 좌초 4.2%(70척) > 화재 3.8%(64척) 등 순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작업 중 인명사상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안전부주의 39.1%(650척) > 정비불량 38.3%(637척) > 관리소홀 9.9%(166척) > 원인미상 3.4%(58척) 등 순 발생

### ○ 해상조난사고 통계('21년~'25년)

- 최근 5년간 20,578척(연평균 4,115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13,178명 중 351명(사망 250명, 실종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20,578	113,178	20,191	112,827	351	250	101
2025년	4,636	26,466	4,558	26,394	72	52	20
2024년	4,213	23,840	4,155	23,747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평균	4,115	22,635	4,038	22,565	70	5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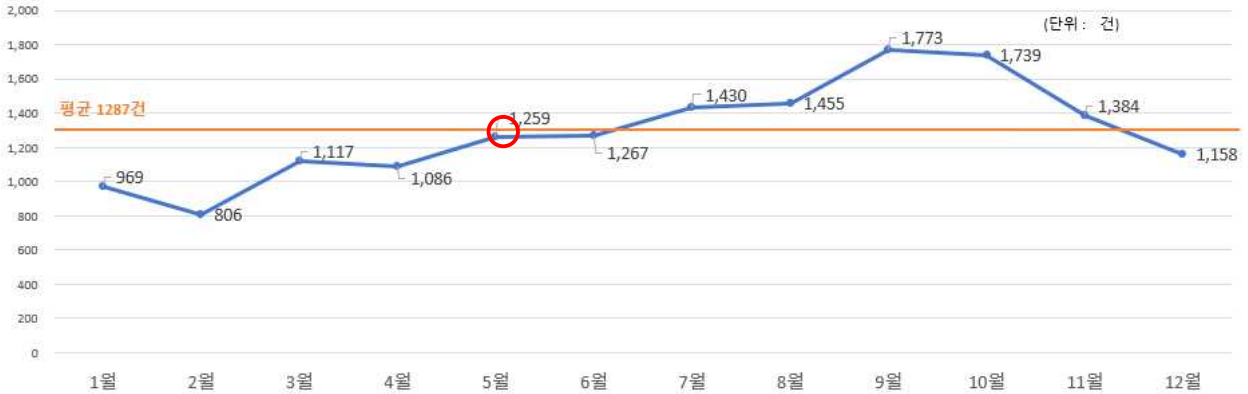


#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최근 5년간(2021~2025) 5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5월 누적 해양사고는 총 1,259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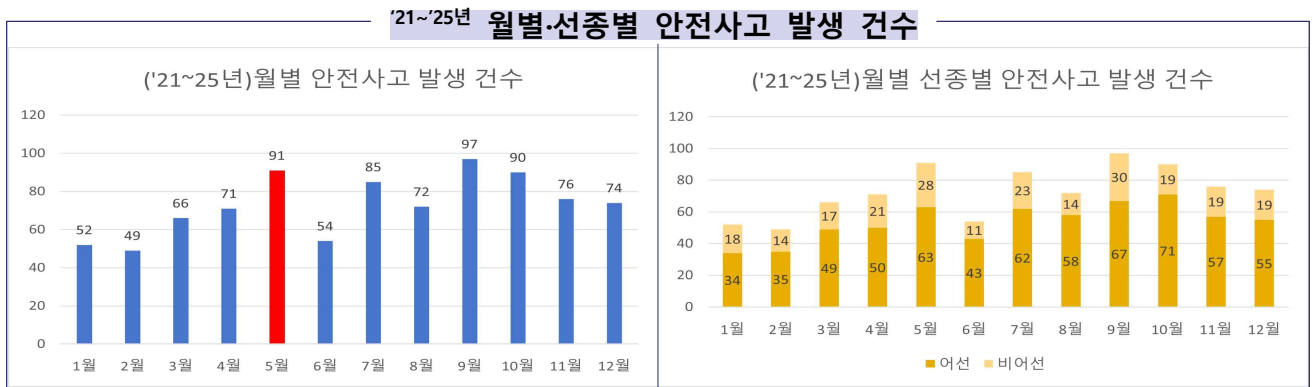
- (사고유형별) 주요사고\*는 충돌 94건(7.5%), 안전사고 91건(7.2%), 화재·폭발 64건(5.1%), 전복 36건(2.8%), 침몰 10건(0.8%) 순 발생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387건(30.7%), 부유물감김 181건(14.4%), 침수 90건(7.1%), 좌초 58건(4.6%) 등 순

○ 5월은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



《월별 해양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 비율 비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근 5년 월별 해양사고 발생 누적건수 (A)	969건	806건	1,117건	1,086건	1,259건	1,267건	1,430건	1,455건	1,773건	1,739건	1,384건	1,158건
최근 5년 안전사고 누적건수 (B)	52건	49건	66건	71건	91건	54건	85건	72건	97건	90건	76건	74건
사고발생률 (B/A)	10.4%	9.8%	13.2%	14.2%	18.2%	10.8%	17.0%	14.4%	19.4%	18.0%	15.2%	14.8%

## □ 5월 주요사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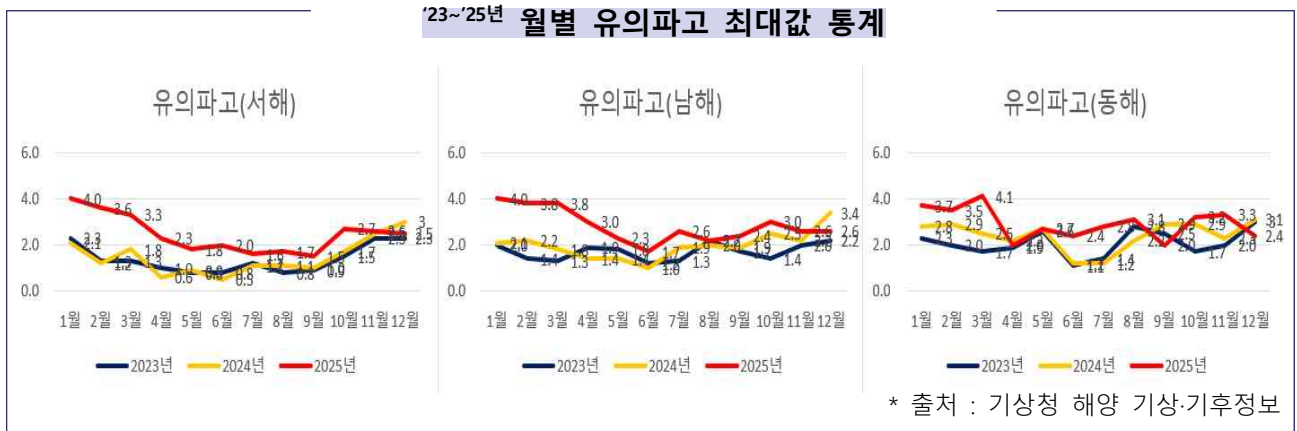
- 조업일수가 늘어난 반면 유의파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어로작업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

## □ 해양사고 예방대책

- (안전사고 예방) 작업중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 착용, 양망기 등 어로설비 이용시 안전거리 유지, 무리한 조업 자제 및 기상정보 주의

\* '26.7.1부터 기상특보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시

- (유의파고) 5월 및 6월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수위가 높아 주의 필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2.3	2.0	2.3	1.3	1.4	2.0	1.3	1.3	1.7	1.0	1.9	1.9	0.8	1.8	2.6	0.8	1.2	1.1
2024	2.1	2.1	2.8	1.2	2.2	2.9	1.8	1.8	2.5	0.6	1.4	2.2	0.9	1.4	2.7	0.5	1.0	1.2
2025	4.0	4.0	3.7	3.6	3.8	3.5	3.3	3.8	4.1	2.3	3.0	2.0	1.8	2.3	2.7	2.0	1.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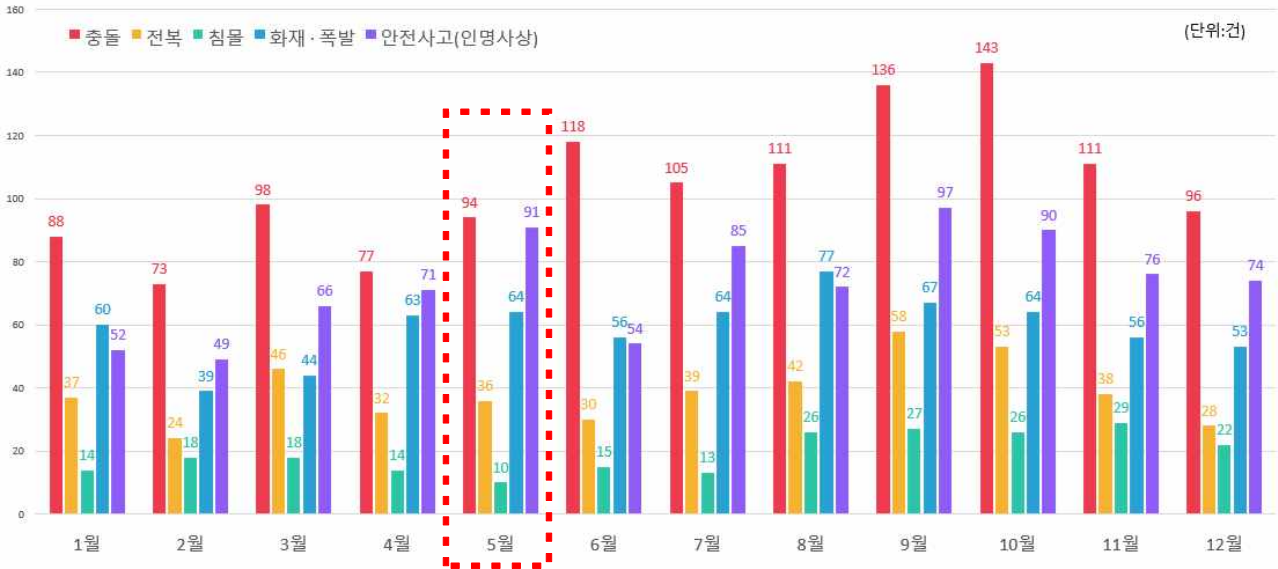
  

지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1.2	1.3	1.4	0.8	2.2	2.8	0.9	1.7	2.5	1.5	1.4	1.7	2.3	2.0	2.0	2.3	2.2	3.0
2024	1.1	1.9	1.2	1.1	2.0	2.2	1.0	1.9	2.9	1.7	2.5	2.9	2.5	2.2	2.3	3.0	3.4	3.1
2025	1.6	2.6	2.8	1.7	2.2	3.1	1.5	2.4	2.0	2.7	3.0	3.2	2.6	2.6	3.3	3.1	3.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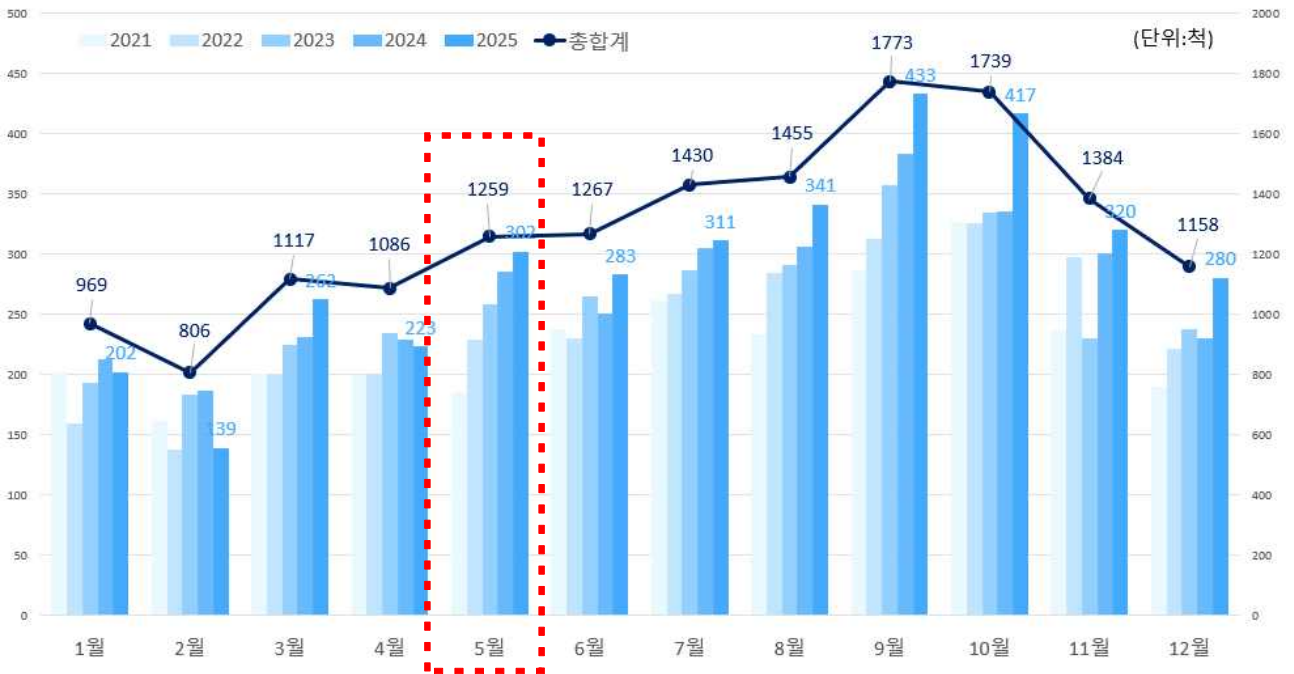
\* 통계 산출 기준은 2025년도 이전은 5개년, 2025년도 이후는 10개년을 적용

## □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21~2025)

### ○ 주요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 ○ 월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 어황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 □ 5월 어황정보

### ○ 연근해 어업생산동향(표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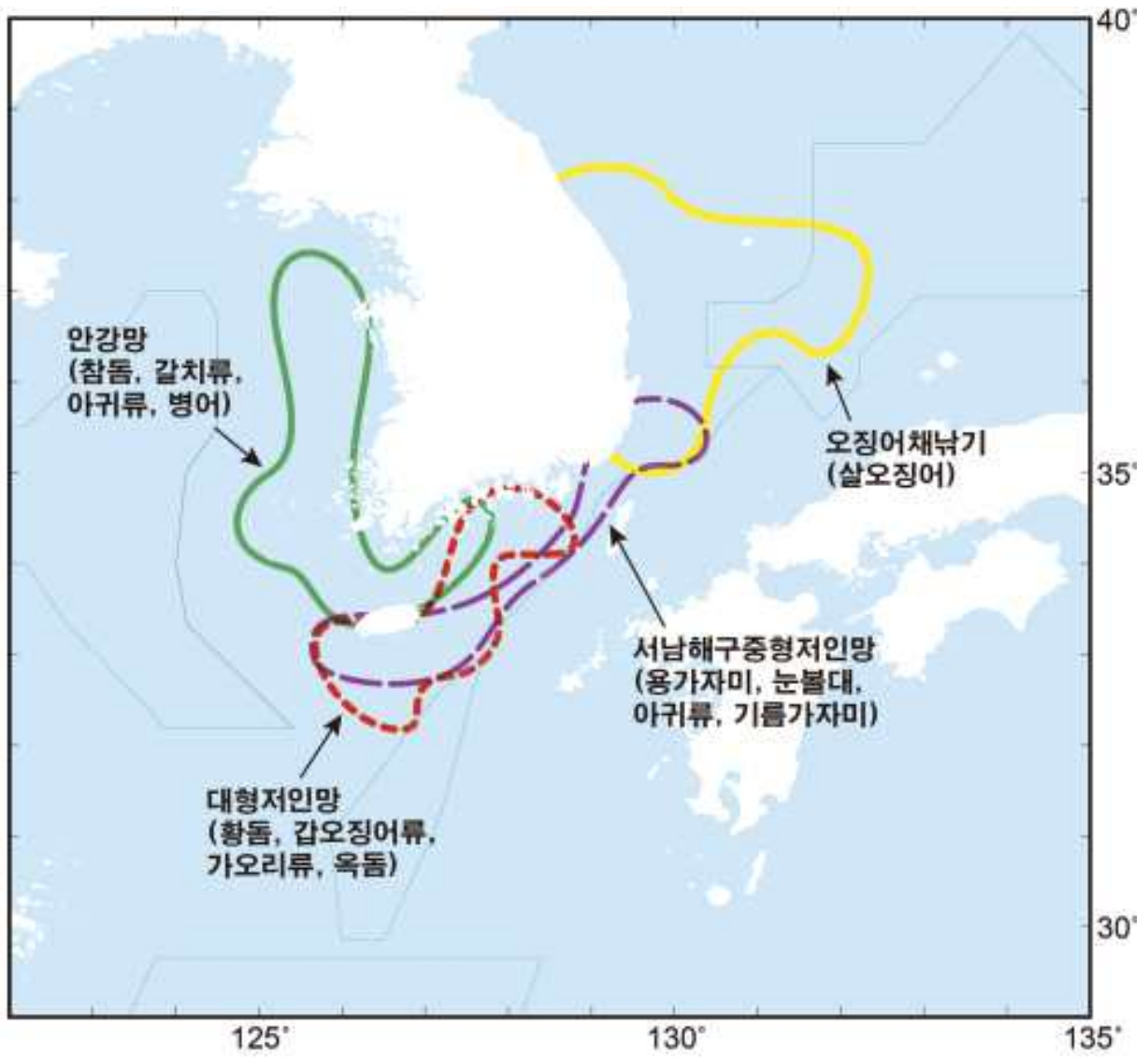
- 4월(기간: '26.3.22.~'26.4.18.)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고등어, 멸치, 삼치는 평년 (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가하였고, 전갱이, 살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 ○ 5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 5월에는 고등어 금어기와 함께 두 달여간 자율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 **근해채낚기:** 금어기가 해제되어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동해 전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선권현망:** 5월에도 금어기가 지속되어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 **근해안강망:**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며, 황아귀와 참돔 등을 대상으로 어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황은 전·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과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서 삼치, 고등어, 방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외끌이대형저인망:**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에서 갑오징어류, 보구치, 황아귀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남부에서 남해와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걸쳐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황아귀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이 이루어지겠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 해역에서 기름가자미, 대구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전체 저인망어업의 어황은 전·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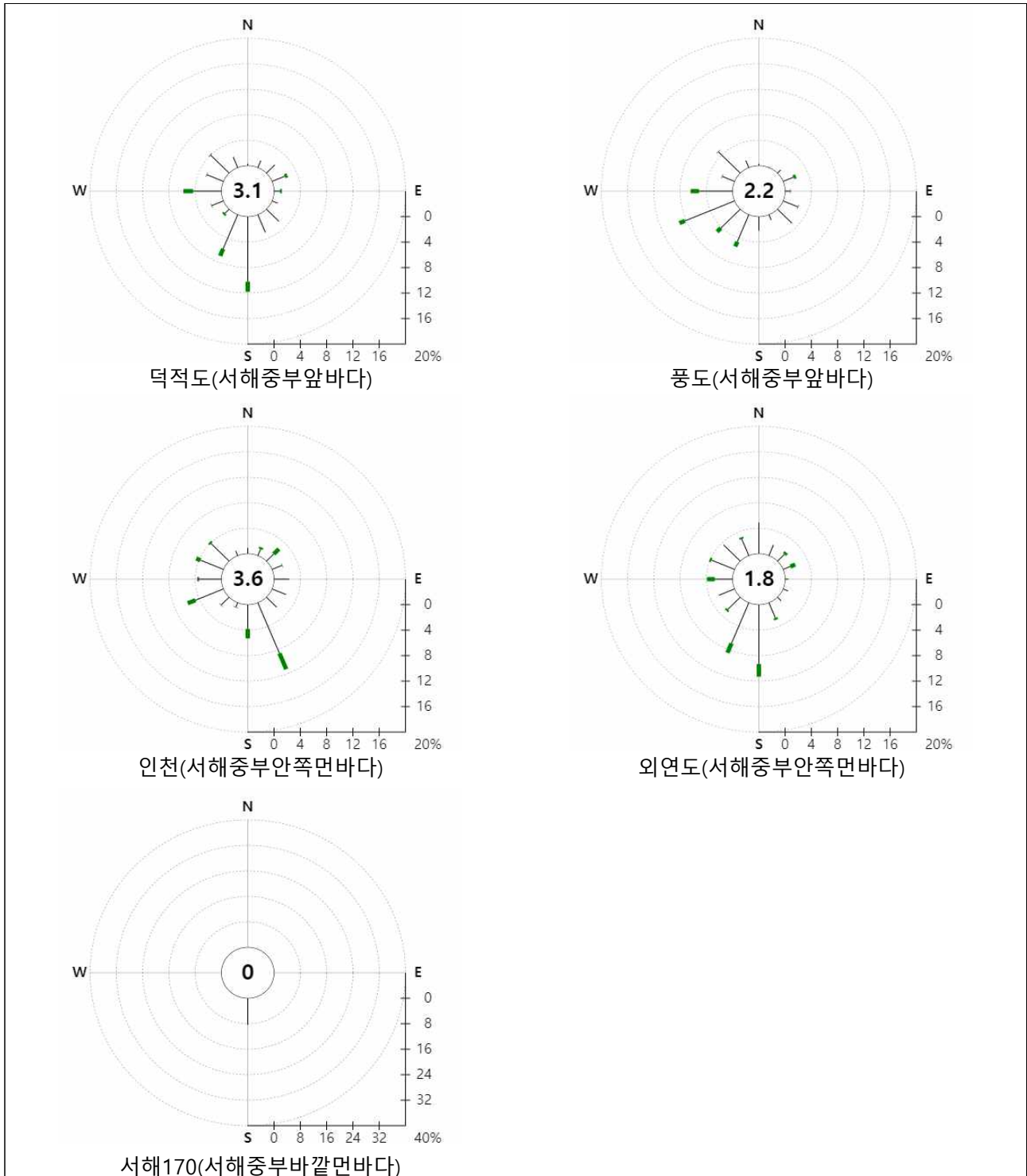
고 등 어	5월에는 금어기(5.1.~5.31.)로 인해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전 갱 이	남해 동부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와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의 금어기가 해제되어 일부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기선권현망어업의 금어기가 지속되어 근해자망어업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며, 거제도과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에서도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다. 어황은 전·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 치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까지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근해안강망어업 등에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제주도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해역까지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근해자망어업을 중심으로 근해안강망어업과 대형트롤어업 등에서 이루어지겠다. 다만,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은 금어기(4.22.~8.10.)로 조업이 제한적이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 치	5월에는 금어기(5.1.~5.31.)로 인해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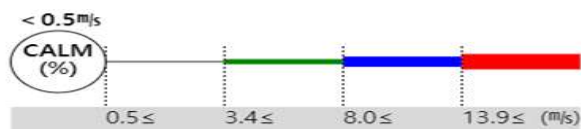
< 2026년 5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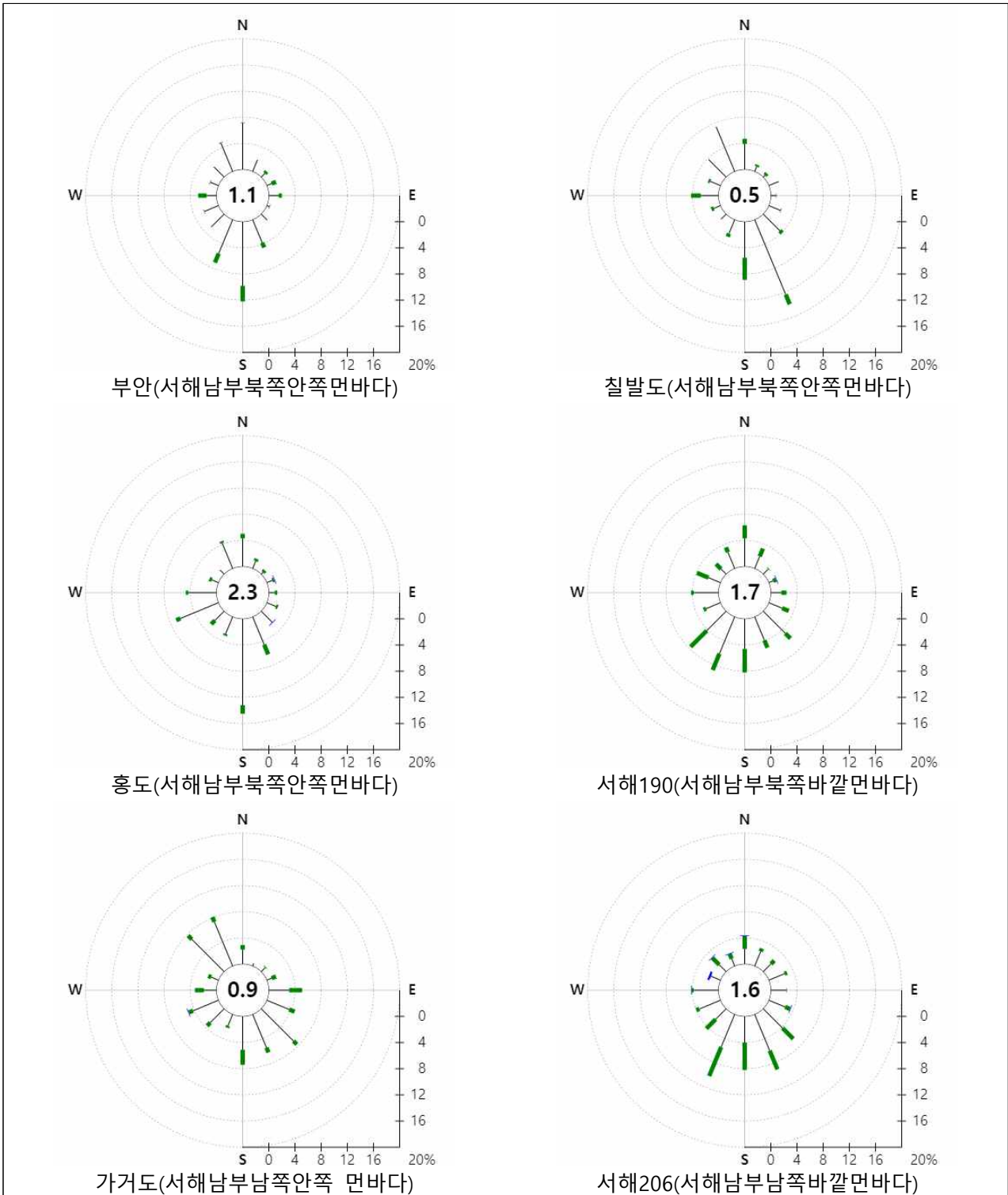
**2025년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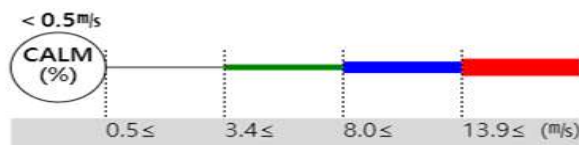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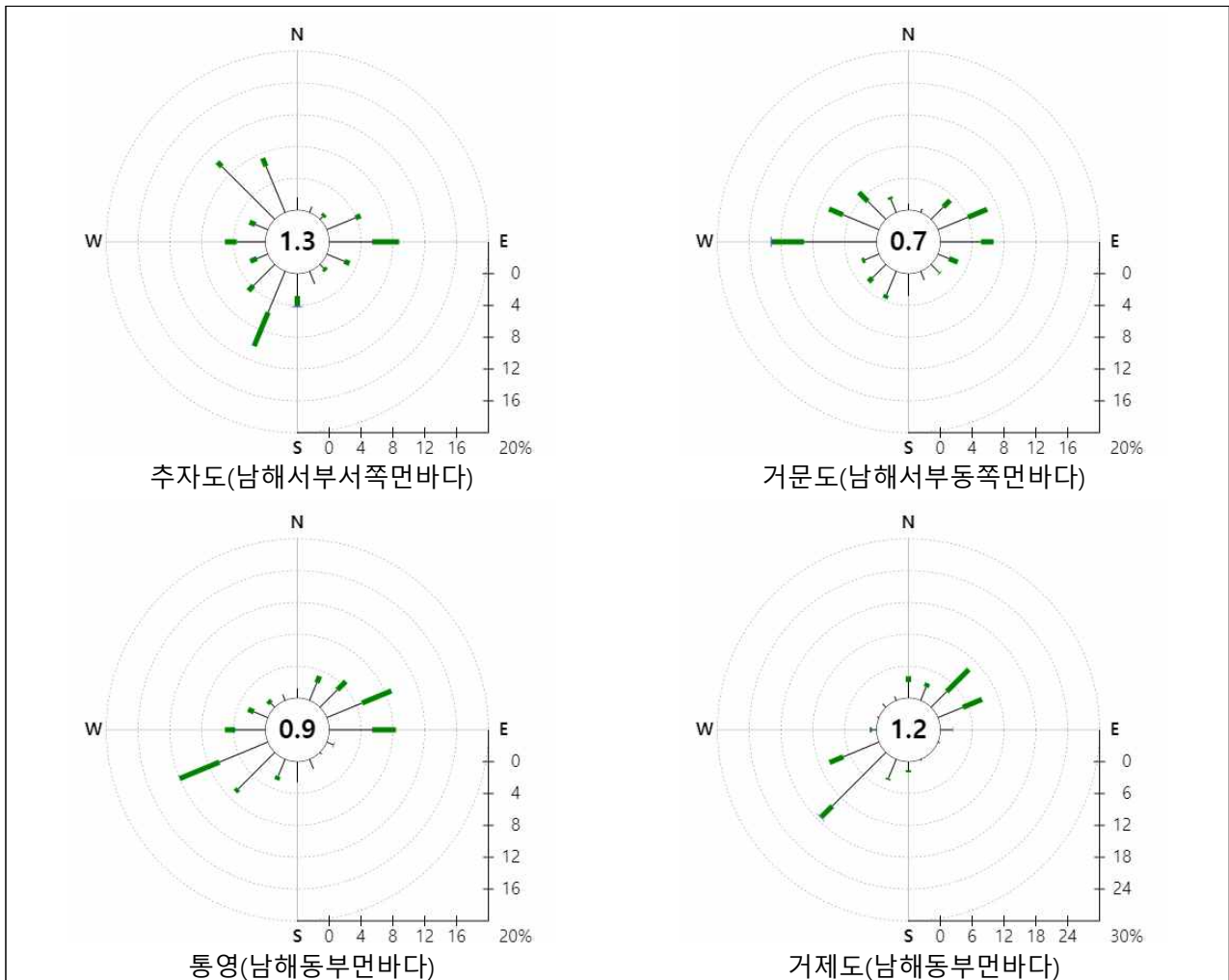
# 2025년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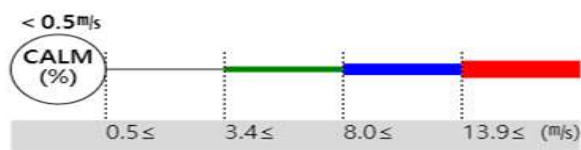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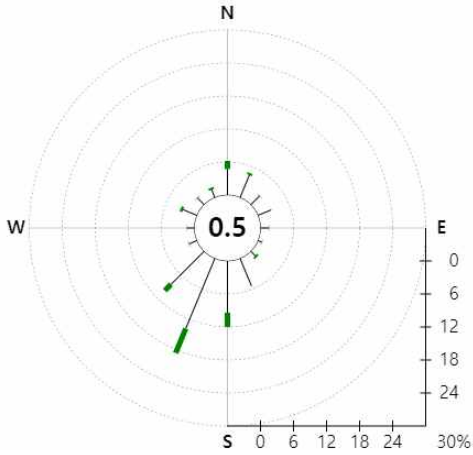
# 2025년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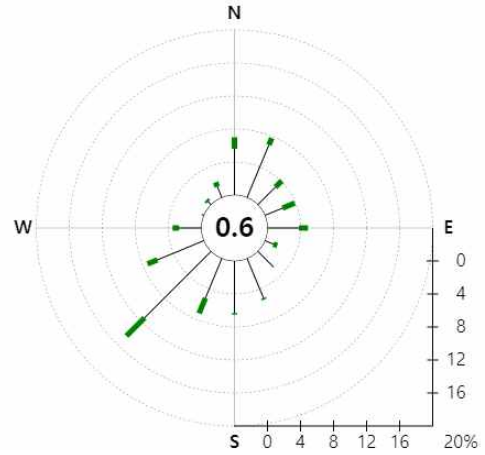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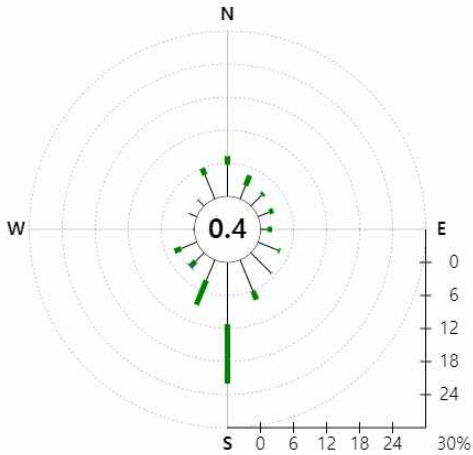
# 2025년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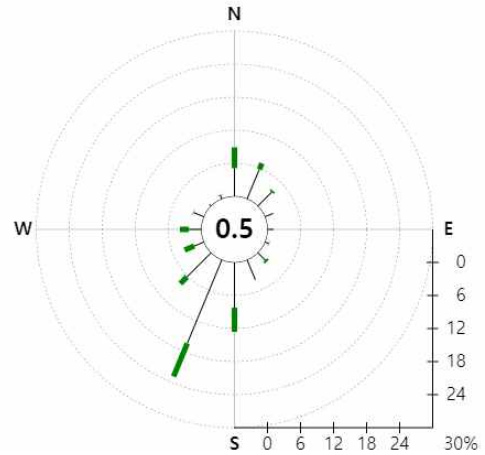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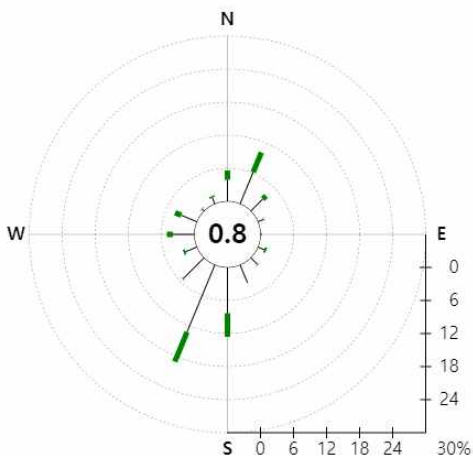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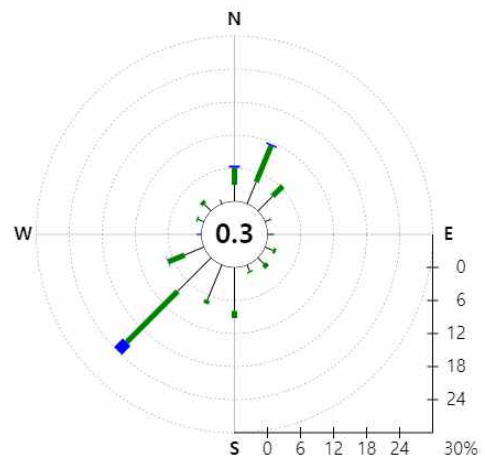
동해78(동해남부북쪽안쪽면바다)



울진(동해남부북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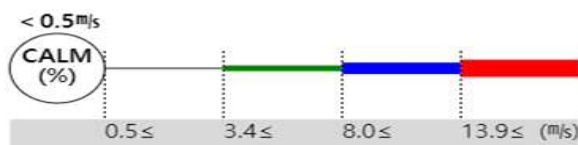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북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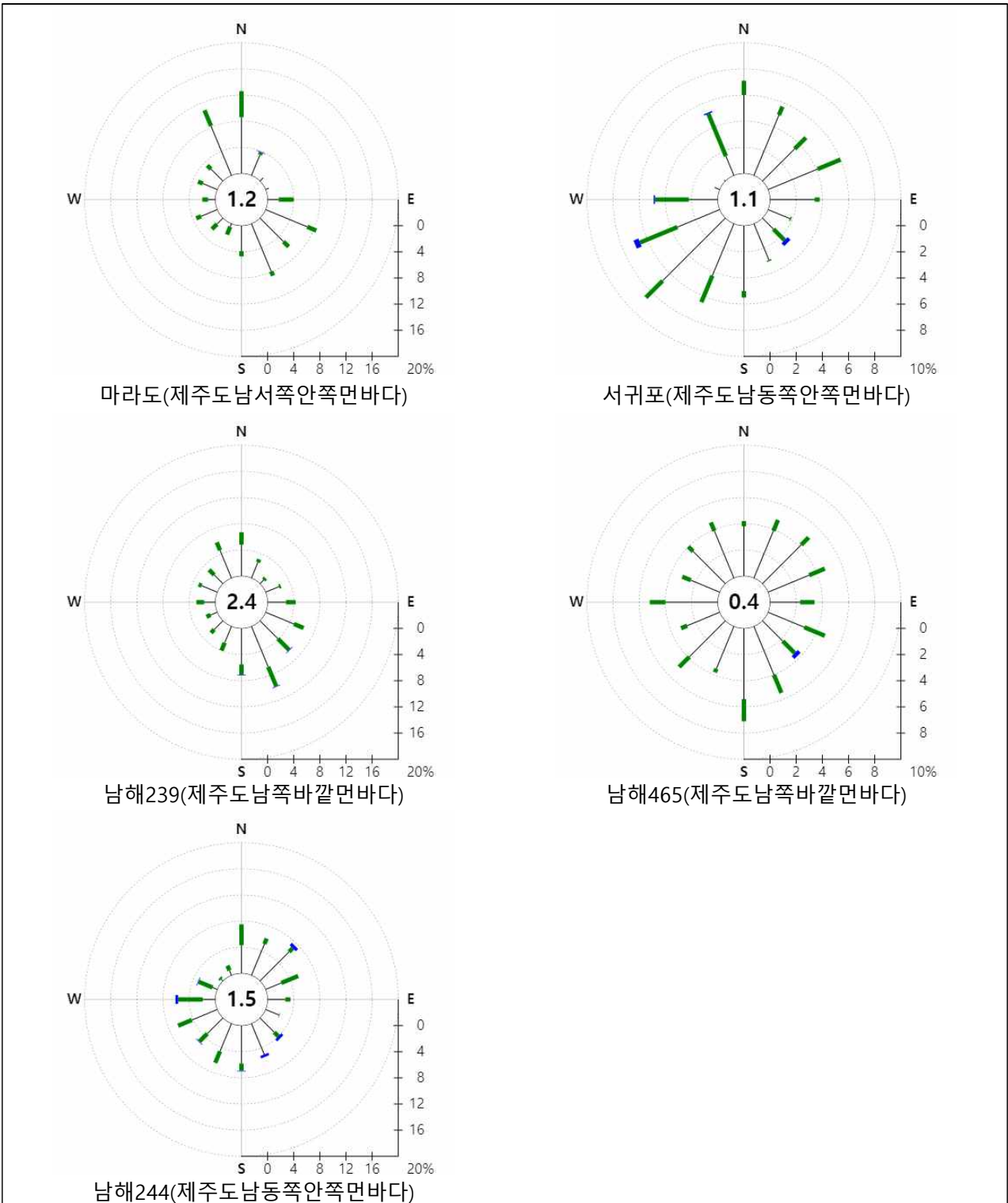


울산(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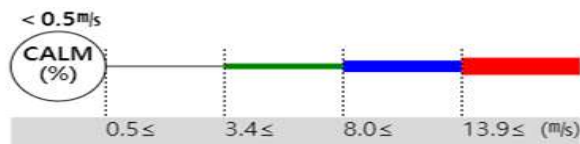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4월, 바람장미) >



# 2025년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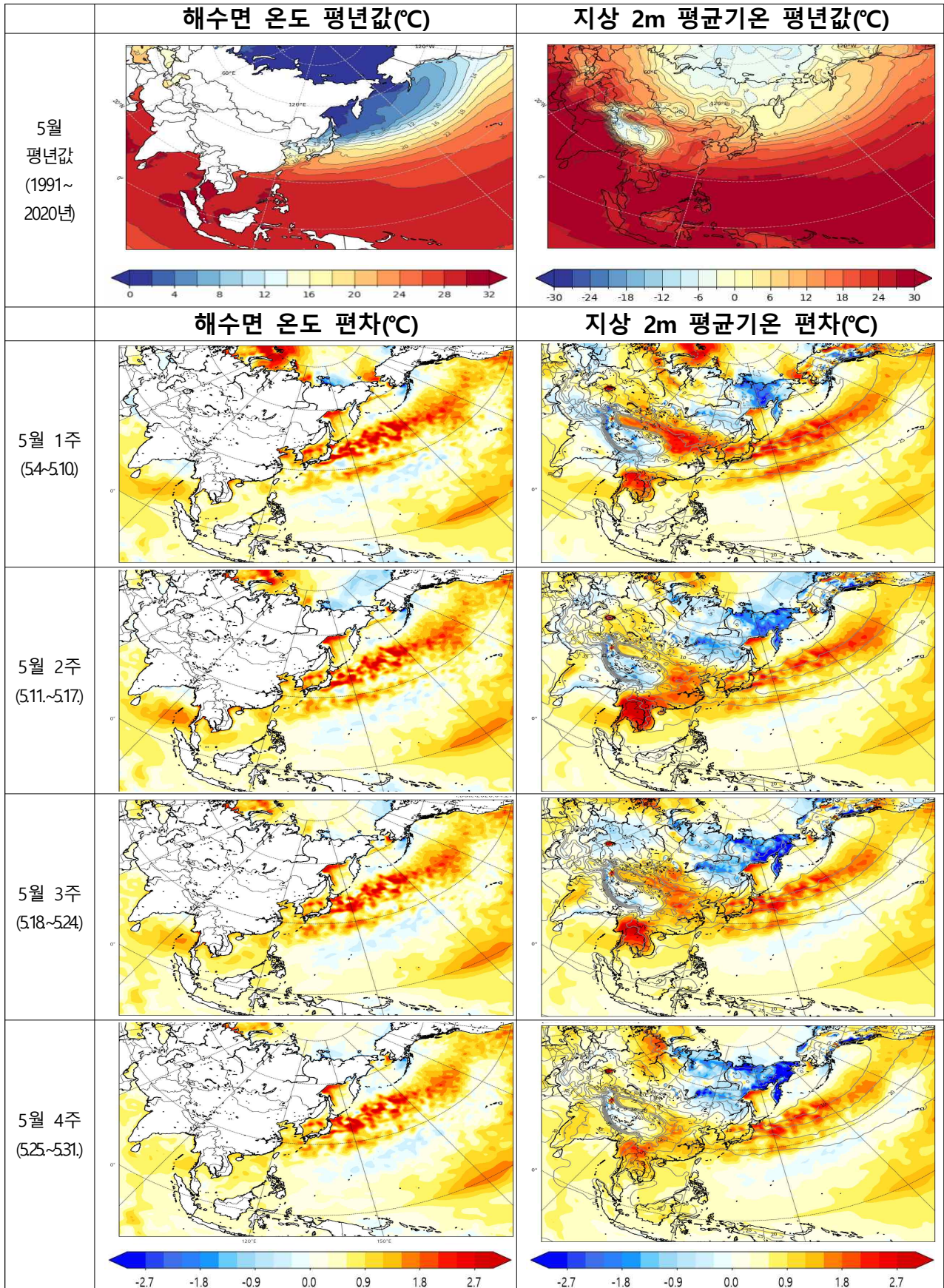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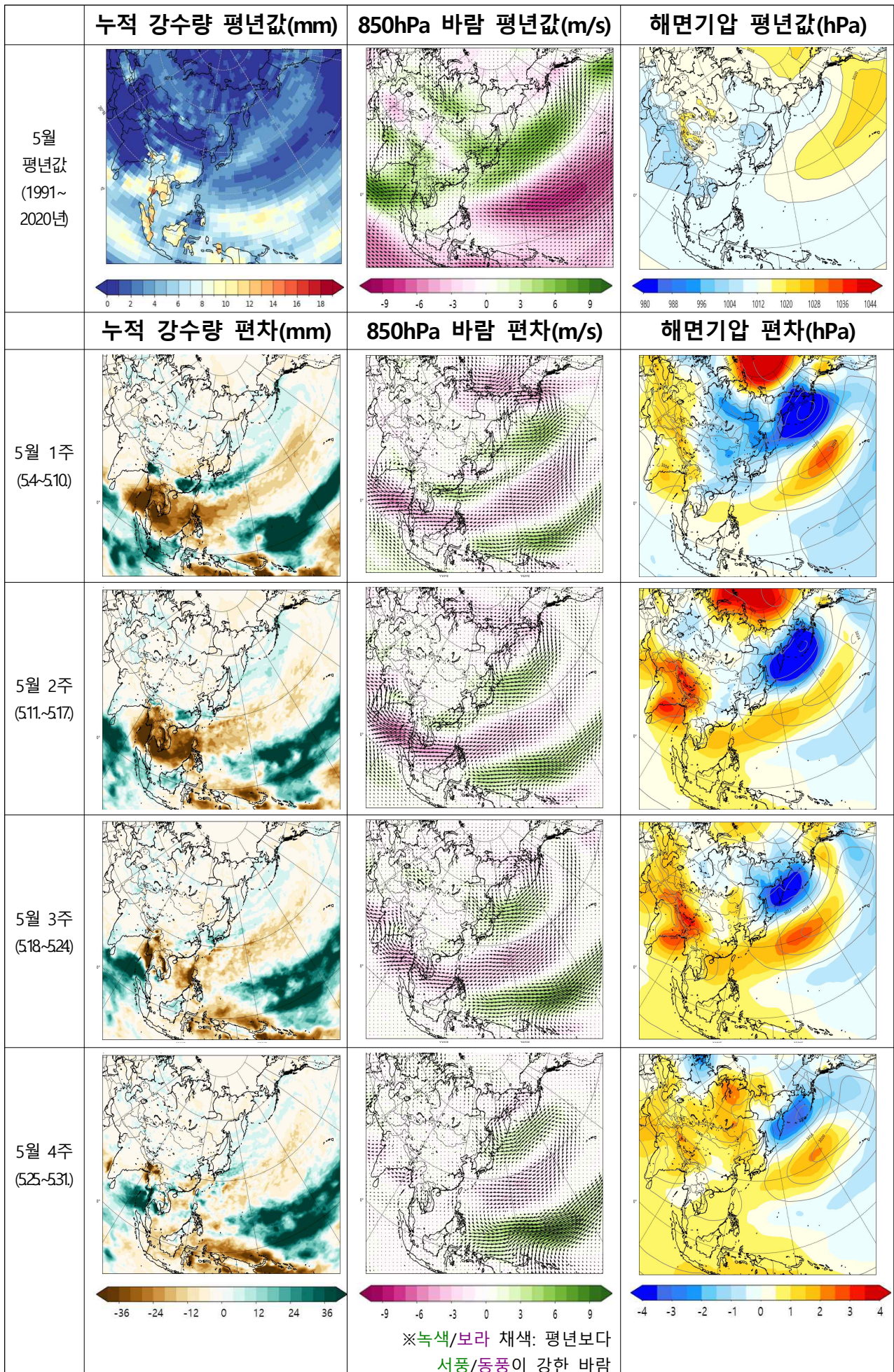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4월, 바람장미) >



**[부록 2]**

**GloSea6 모델 예측자료**





※녹색/보라 채색: 평년보다  
서풍/동풍이 강한 바람

**[부록 3]**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선원부상사건** 안전교육 미 실시, 선원 부주의

<b>사건 개요</b>	<b>선박</b>	A호: 어선, 4.99톤, 길이 11.00미터
	<b>일시</b>	2024년 5월 12일 10시 39분경
	<b>장소</b>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서도 남단 80도 방향 7.5해리 해상
	<b>피해 상황</b>	A호는 새우 조망어업을 하기 위하여 2024. 5. 12. 06:11경 선장과 선원 1명 등 총 2명이 승선한 채 거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4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 같은 날 07:50경부터 예망함. 같은 날 10:25경 예망 중인 그물이 해저의 빨에 박혀 예망이 불가하여 양현의 사이드롤러로 끌줄을 감기 시작함. 위 사고 일시와 장소에서 선원이 사이드롤러에 끌줄이 영키는 것을 풀려고 하던 중 오른손이 줄과 함께 사이드롤러에 감겨 돌아가 오른쪽 손목의 뼈들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함.
<b>날씨</b>	서풍 초속 8~10미터, 파고 1.5~2미터, 시정 3해리, 흐린 날씨	
<b>원인</b>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여 손이 어구줄과 같이 양망기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복장 확인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	
<b>교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원은 양망기 등 회전하는 장비에 그물 등이 영키는 경우 반드시 회전을 안전하게 장비를 정지시킨 뒤 정리 작업을 해야 한다.</li> <li>○ 선장은 양망기 등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비를 선원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할 때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복장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li> <li>○ 선장은 작업 전체에 대한 관리자로서 상황을 지휘·감독해야하고, 가능한 그러한 작업인력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작업현장에 배치해야 한다.</li> </ul>	
<b>관련 사진</b>		
A호 항적 및 사고해역도(左) 및 좌현 사이드롤러와 조작 레버(右)		

## 2. 어선 A호 선원사망사건

안전관리 소홀, 작업인력 배치 부적절

사건 개요	선박	A호: 어선, 72톤, 길이 30.88미터
	일시 장소	2022년 5월 30일 20시 3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 남방 약 8마일 해상
	피해 상황	A호는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22. 5. 28. 21:05경 진도 서망항에서 선장 포함 8인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하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이었음. 2022. 5. 30. 20:37경 투망 과정에서 범포가 펴지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짐줄을 다시 거둬들이려는 순간 사고선원이 레버를 오작동하여 양망기에 끼어 사망함. 사고 이후 선장은 즉시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투망한 그물을 모두 양망하는 등 3시간 반가량을 소요한 후 신고함.
	날씨	남서풍 초속 6~8미터, 파고 0.5~1미터, 시정 약 3해리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A호가 투망 작업 중 그물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어구줄을 다시 감아 들이는 과정에서 선장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적절한 인력 배치로 인하여 경험이 부족한 사고 선원이 양망기를 반대로 조작함으로써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장은 선박에서의 각종 작업에 있어 정해진 인력이 배치되도록 관리하고 이를 항시 감독하여야 한다.</li> <li>○ 선장은 상황 판단이 더디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규 선원이나 외국인 선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항시 확인해야 한다.</li> <li>○ 선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정확히 이해한 후 동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지시자에게 다시 물어 확인하여야 한다.</li> <li>○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ul>	
관련 사진	<p>양망기 모습 및 설치 위치(左) 및 사고 발생 당시 상세 항적(右)</p>	